

필사본 『조생원전』의 이본 유형과 담론 변이의 특징*

하 강 진**

차 례

1. 머리말
2. 이본의 문헌 분석과 선본 탐색
3. 이본의 서사 구조와 유형 분류
4. 이본별 서사 담론 변이의 특징
5. 맺음말

국문초록

계모형 가정소설의 대표 작품의 하나인 필사본 『조생원전』에 대한 연구가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본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문제 시각에서 총 43종 이본을 대상으로 선본을 결정하고, 종결부가 아닌 중심사건을 중심으로 이본 유형의 재설정과 작품 분위기나 서사 전개에 영향을 주는 담론 변이의 주요 양상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작품 9편을 입력해 통계 처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조생원전』의 이본들은 19세기부터 1962년 사이에 생산되었고, 작품

* 이 논문은 2018년 동서대학교 “Dongseo Frontier Project”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동서대학교 영상문학전공 교수.

배경은 1830년대로 추정했다. 실제 입력한 9편의 작품을 기준으로 최다 분량은 박순호 54장본이고, 최소 분량은 율곡기념도서관 32장본(갑인본)으로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또 텍스트의 물리적 성격과 서사 담론 비교를 통해 장서각 40장본, 김광순 62장본, 박순호의 40장본(임인본)·50장본·54장본·55장본, 박태상본, 하강진 29장본, 율곡기념도서관의 25장본·28장본·31장본·32장본(갑인본)·42장본·74장본이 선본임을 알 수 있었다.

중심 사건의 담론 변이를 기준으로 서사 구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분류 기준은 조생원의 꿈속에 망치가 등장해 가사를 잘 처리하라는 화소와 조천행이 조부를 찾아 나선 길에 한양에서 봉사를 만나 예언을 듣는 화소의 병치 유무이다. I 유형은 봉사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이고, II 유형은 봉사가 등장하는 경우이다. 동일 유형의 이본들도 서사담론의 특징에 따라 더 세분화된다.

작품 분위기와 서사 전개에 영향을 주는 담론 변이는 필사자의 서사 의식이나 언어 지식에 기인하는데, 이본의 분량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그 특징을 사건 전개의 합리성 추구, 세부 장면의 사실성 강화, 지역 명소의 장소감 표출, 고전 지식의 이해도 편차, 서민 계층의 해학적 정서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본의 변이 양상은 동일한 저본이나 다른 이본, 인접 갈래의 작품을 복합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은 이본의 계보를 설정하고, 텍스트를 정밀하게 읽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이본 연구는 한 작품을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다른 고소설과 비교할 때 합당한 작품을 선택하는 기초가 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제어 : 조생원전, 필사본, 필사자, 이본, 선본, 유형, 서사 담론, 담론 변이.

1. 머리말

조선후기 계모형 가정소설의 대표 작품의 하나로서 우리나라를 서사 공간으로 배치한 『조생원전』은 현재까지 70여 종의 이본이 전해지고 있다.¹⁾ 19세기에 형성되었지만 목판본이나 활자본은 없고 한글 필사본으로만 존재한다. 『조생원전』의 이본이 많다는 사실은 가정소설의 정전 지위에 있는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장화홍련전』, 『콩쥐팥쥐전』 등과 못지않게 교양 독서 텍스트로서 독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는 뜻이다.

독자들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배경으로 계모의 악행에서 기인된 ‘첫날밤 신랑 피살 사건’을 소설화한 점을 들 수 있다.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이 엽기적인 전승 설화가 소설 양식으로 전환됨으로써 향유 계층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조선 시대의 지배적 사회적 이념을 작품의 기저로 삼으면서 가족과 인륜을 배반한 해악 무리에게 잔인한 복수를 단행하는 데서 유발되는 통쾌한 미적 정서가 유통 과급력을 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공동체 유지에서 강조하는 효도는 고급의 중요한 덕목이기에 고소설 시대가 종료된 1960년대에도 작품이 전사되었다.

필사본 『조생원전』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로 진척되었다. 권영철이 조선후기 판소리계 소설의 미적 양식을 흡수해 지은 계모형 가정소설로 주목한²⁾ 이후 조선후기 서사 양식의 상호 교섭에 따른 문체 변이 양상을 보이는 고소설사적 성격,³⁾ 1917년 첫 활자본으로 나온 고소설로 배

1)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657-660쪽;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 보정』 하, 박이정, 2006, 930-932쪽. 출처의 경우 영인본과 논저는 쪽, 원전은 면으로 표기한다.

2) 권영철, 「조생원전(權本)에 대하여」, 『수우재 최정석박사회갑기념논총 한국문학 연구』, 효성여대 출판부, 1984, 1-13쪽.

3) 서인석, 「조생원전(필사본)의 문학사적 성격」, 『국어국문학연구』 19, 영남대 국문과, 1991, 85-113쪽.

경 인물과 서사 구조가 상이한 동명의 『조생원전』이나 모티프가 유사한 고소설이나 신소설과의 연관성⁴⁾, 가정소설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작품으로서 판소리의 서민적 비장미 계승이나 인물 갈등의 양상이나 작품에 가려진 열행의 의미⁵⁾, 전승 설화의 영향과 그 소설화 특징⁶⁾ 등으로 논의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조생원전』의 이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가 늘어남에 따라 검토 대상이 확대되었고,⁷⁾ 종합적이고도 본격적인 규명은 서혜은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⁸⁾ 율곡기념도서관 소장본 14종을 포함한 41종의 이본 양상을 6계열과 기타로 구분한 뒤 작품 필사기나 첨부된 자료에 의거해 향유 계층으로서 여성 독자의 향유 의식을 밝혔다. 중

-
- 4) 최운식, 「〈김씨열행록〉 연구」, 『국제어문』 11, 국제어문학회, 1990, 47-76쪽; 안미을, 「〈조생원전〉의 후대적 변모」, 경남대 석사, 1992; 이윤경, 「〈성부인전〉을 통해 본 〈조생원전〉의 변모 양상」, 『돈암어문학』 15, 돈암어문학회, 2002, 295-317쪽; 전용문, 「〈조생원전〉과 〈김씨열행록〉의 상관성」, 『어문연구』 5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411-439쪽; 장우석, 「〈조생원전〉의 이본고」, 『송실어문』 22, 송실어문학회, 2006, 189-210쪽; 서혜은, 「이해조 <구의산〉의 <조생원전〉 개작 양상 연구」, 『어문학』 113, 한국어문학회, 2011(ㄴ), 327-357쪽; 신희경, 「매체 양식에 의한 고소설의 변이 양상 연구」, 『정신문화연구』 39권 2호, 2016, 81-107쪽.
- 5) 이성권, 『한국 가정소설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175-198쪽; 장시광, 「계모형 소설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작가의식」,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291-323쪽; 김희경, 『조선조 열녀소설 연구』, 경성대 대학원 박사, 2011; 김유란, 「조선 후기 한글소설에 나타난 과부와 열행 너머의 문제」, 『한국어와 문화』 21,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2017, 5-29쪽.
- 6) 최운식, 앞의 논문; 이윤경, 「계모형 고소설 연구」, 성신여대 박사, 2004; 김영권, 「‘첫날밤 신랑 피살담’의 서사적 양상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44, 한국문학회, 2006, 189-218쪽; 성형석,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형 설화의 소설화 양상에 관한 연구」, 경성대 석사, 2008; 김영권, 「‘첫날밤 신랑 모해 설화’의 소설화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2012; 박진아, 「‘누명 쓴 신부’ 설화의 소설화 양상 연구」, 『어문논총』 69,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75-96쪽.
- 7) 최운식, 앞의 논문, 49-51쪽; 전용문, 「조생원전의 이본고」, 『학산 조종업박사 화갑기념논총』, 태학사, 1990, 393-414쪽; 서인석, 앞의 논문, 87-89쪽.
- 8) 서혜은, 「〈조생원전〉의 이본 계열과 여성 독자층의 향유 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 한국여성문학회, 2011(ㄱ), 133-162쪽.

결부를 중심으로 이본들의 차별적 성격을 명료하게 드러낸 점에서 소중한 성과라 하겠다.

그럼에도 특정 작품이나 타 작품과의 비교 연구, 이본 양상의 검토 등에서 재고할 부분이 있다. 우선 작품 활용의 사례를 보면⁹⁾ 특정한 이본에 편중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본의 서지 특징이나 善本 텍스트 여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현대 맞춤법으로 표기된 이본을 다룬 경우도 있는데, 이왕이면 고어로 된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종결부 이외에는 내용상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서술자, 곧 필사자의 소설적 상상력이 풍부하게 개입하는 결말 형태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본 유형의 과도한 세분화와 함께 중요 사건에 대한 서사 담론의 특징이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관건은 개별 이본 작품의 전체적인 서사 담론 특징에 대한 정밀한 검토이다.

이에 본고에서 다룰 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본들의 물리적 문헌 특징과 표기 체계, 본문 변화를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텍스트 사이의 연계성과 이본의 선본 여부를 따져본다. 둘째, 종결부가 아니라 중심 사건의 층위에서 변이된 서사 담론을 근거로 이본의 유형을 새롭게 분류해본다. 셋째, 음운 변화, 조사나 어미 탈락 등의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이본 발생의 주된 요인인 담론의 변이 실체를 밝히고 이를 통해 필사자의 서사 의식을 파악한다.

위 논지는 이본 간의 서사 단락을 세밀히 대조함으로써 입증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이본은 공간된 책과 전자문헌을 포함해

9) 후술의 이본 현황 중에서 장②『조생원전이라』는 최운식, 박①『조생원전니라』는 김영권·전용문(2006)·서혜은(ㄴ), 박②『도생원전』은 이성권·장시광·이윤경(2004)·서혜은(ㄴ), 박④『조생원전』은 안미을·김희경·김유란, 박⑦『조생원전』은 김유란, 박태상본 『조생원전』은 서인석·신희경·장우석·이윤경(2004), 김①『조한림전』은 박진아 등이 직간접으로 활용했다. 이중 박④·⑦과 김①은 현대국어 표기법으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

총 43종이다.¹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본을 선택해 입력한 뒤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상호 관계성을 실증적으로 밝힐 것이다.

2. 이본의 문헌 분석과 선본 탐색

1) 작품의 형성시기와 시대 배경

『조생원전』의 창작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8세기 이전으로 소급하기 어렵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선편을 잡은 권영철은 1795년 정조의 수원성 능행에 주목해 작품 형성 시점을 조선조 말엽이라 했다.¹¹⁾ 최운식은 『김씨열행록』과의 관계에 비추어 장서각의 40장본은 1865년, 37장본은 1869년을 상한선으로 추정했다.¹²⁾ 이를 수용해서 형성시기를 보장한다면 조기순의 유람 행로의 하나인 수원 용주사¹³⁾를 들 수 있다. 이 두 배경 정보를 감안하면 작품 형성은 19세기임이 분명해진다.

정조 임금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나오는 이본들을 보면 10세의 조천행이 한양에서 정조의 수원 능소 거동 광경을 목격한 해가 “신묘년”¹⁴⁾이라 했다. 그런데 신묘년은 1771년 아니면 1831년으로 둘 다 정조

10) 이외 입수 관계로 다루지 못한 박순호본 11종, 정명기본 5종, 연세대본 4종, 임형택본 3종, 고려대본 2종, 이수봉본 2종, 계명대·세종대·전남대·국립한글박물관·미도민속관·강전섭·권영철·사재동·서인석·황인덕본 각 1종 등은 차후의 과제로 미룬다.

11) 권영철, 앞의 논문, 2쪽.

12) 최운식, 『한국 고소설 연구』(개정판), 보고사, 2006, 251-252쪽.

13) 용주사는 화성시 송산동에 있는 사찰로, 952년 소실된 채로 있다가 1790년 사도세자의 능인 현릉원에 명복을 빌어주는 능사로 창건되었다. 이본에는 여러 지명이 대개 그렇듯이 불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요주스”(장③), “용문스”(김③), “요두사”(박②, 하①), “용주산”(박⑥), “용슈자”(박⑫), “용두사”(울①·⑬·⑱·⑲), “용주시”(울②), “용주스”(울③), “용주스”(울⑥·⑪), “용두산”(울⑦·⑧), “요두스”(울⑨), “용슈사”(울⑮) 등이다.

14) 김① “신묘 습월 땅간”(250쪽), 김④ “신묘 산월 땡일”(241쪽), 박④ “신묘 삼월

시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와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다름 아닌 작가의 소설적 상상력 개입의 차원에서 해명할 수 있다. 즉 부잣집 아이들이 호종 군사들의 위엄 있는 행렬을 구경하는 들뜬 분위기를, 조천행의 외로운 처지와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슬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소설적 의도에서 정조 시대를 소환한 것이라 하겠다. 독자들은 정조 호출의 시대적 타당성을 구태여 파고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 비추어 유용한 작품의 정보는 “정조”가 아닌 “신묘년”에 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면 ‘1831년’ 신묘년은 작품 내적 정보를 정밀하게 읽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곧 조영이 출생한 갑자년은 1804년이고, 그가 15세 때 금강산 수월암에서 내려와 결혼한 무인년¹⁵⁾은 1818년이며, 그해에 조기순은 범인을 처단하고서는 팔도유람을 결행했다. 이듬해 유복자로 태어난 조천행이 조부를 찾아 집을 나선 10세 때는 1828년에 해당하고, 3년 뒤인 1831년에 문물이 변화한 한양에서 부잣집 아이들을 만났으며, 수탐한지 6년 만인 1834년에 드디어 화방사에서 두 사람이 상봉해 강릉의 고향집에 돌아온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의 나이 16세 때 이자 조부가 방랑한 지 16년째 되던 해이다.¹⁶⁾

망일”(242쪽), 박⑩ “신묘연 망간”(811쪽), 을⑤ “신묘 습월 망일”(64면)로 되어 있다.

- 15) 조기순이 수월암 대사에게 편지를 보낸 해나 조영이 결혼 첫날밤 역사한 해의 간지를 보면 장①, 김②~④, 박②·④·⑥·⑦·⑨·⑪·⑫, 박태상본, 을①·⑤·⑪·⑮에는 모두 “무인년”으로 단일하다. 반면에 다른 작품에는 “무신년”(장②, 박①, 을③·⑬), “무진년”(장③, 을⑧), “임인/정미년”(김①), “무진/정미년”(박③), “무진/무인년”(박⑤), “정미년”(박⑧, 을⑬), “임신/무인년”(박⑩), “무진/정미년”(을⑦·⑨·⑰·⑲), “무인/임자년”(을⑩·⑳), “무인/정미년”(하①) 등의 여러 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 16) 한편, 김①에 조생원, 조천행, 장씨부인 삼인이 만난 해가 “함풍 십칠년”(188쪽)인데, 이 연호는 1851년부터 10년간 사용했으므로 실제와 다르다. 그리고 을⑬에서 ‘조기쥬’의 활동 시기를 철종 즉위 이후로 설정했으면서도 그의 아들 조영이 역사한 해를 무신년(1848)이라 함으로써 내적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2) 이본 비교를 통한 선본 결정

학계에 처음 소개하는 필자의 소장본 2종을 포함해 총 43종의 이본 현황을 우선 표로 제시한다.

조생원전의 이본 현황

소장처	서명	장수	행수	필사 시기	소재(등록번호, 수록면)
한국학 중앙 연구원	①조생원전이라	48	9	-	장서각 018347
	②조생원전이라	40	12	을축년	장서각 020738
	③조씨전이라	37	13	기사년	장서각 020811
김광순	①趙翰林傳	16	16	임인년	전집 21권, 159~191쪽
	②조생원전	62	10	-	전집 24권, 148~271쪽
	③선설 조생원전	33	11~12	-	전집 24권, 322~386쪽
	④조생원전이라	56	10	정축년	전집 63권, 149~259쪽
김동욱	조생원전 권지단이라	37	11	임자~경오	총서 57권, 581~653쪽
박순호	①조생원전니라	35	10~11	-	총서 44권, 468~537쪽
	②도생원전	40	10	임인년	총서 57권, 757~836쪽
	③도생원전이라	40	11~12	-	총서 58권, 1~79쪽
	④조생원전	67	6~8	-	총서 90권, 139~272쪽
	⑤조생원전 권지단니라	55	9	병자년	총서 90권, 275~383쪽
	⑥조생원전 권지단니라	50	11	정미년	총서 90권, 384~483쪽
	⑦조생원전	32	8~15	-	총서 90권, 485~548쪽
	⑧조생원전	27	12	-	총서 90권, 549~602쪽
	⑨조생원전니라	53	8~9	-	총서 90권, 603~707쪽
	⑩조생원전니라	29	10~11	무오년	총서 90권, 708~764쪽
	⑪고대소설 조생원전	25	11~13	-	총서 90권, 772~820쪽
	⑫조생원전이라	54	10	-	총서 91권, 1~108쪽
박태상	도생원전	27	13~14	정사년	『국문학연습』, 140~193쪽
하강진	①조활립전	29	10	을미년	개인
	②조생원전이라	32	12~13	-	개인

소장처	서명	장수	행수	필사 시기	소재(등록번호)
단국대	①조생원나라	74	10	-	울곡기념도서관 Y314769
	②조생원전나라	41	12	-	울곡기념도서관 Y344328
	③없음	42	9	무인년	울곡기념도서관 Y345434
	④도생원전이라	18	12	정유년	울곡기념도서관 Y345435
	⑤조생원전 권지단	40	12~15	-	울곡기념도서관 Y345474
	⑥조생원전나라	48	10~11	-	울곡기념도서관 Y345493
	⑦조생원전	42	11	기사년	울곡기념도서관 Y345625
	⑧조생원전	25	16	대정2년	울곡기념도서관 Y345626
	⑨조생원전 권지단나라	37	11	임자~경오	울곡기념도서관 Y358662
	⑩조생원전이라	41	11~12	계묘년	울곡기념도서관 Y358663
	⑪조식원전나라	28	11~14	기사년	울곡기념도서관 Y359636
	⑫도생원전	7	11	무인년	울곡기념도서관 Y359765
	⑬조생원전이라	32	8~9	갑인년	울곡기념도서관 Y359766
	⑭조생원전이라	18	10~11	-	울곡기념도서관 Y359767
	⑮조생원전	48	11	정축년	울곡기념도서관 Y359768
	⑯조생원전이라	31	12	-	울곡기념도서관 Y359859
	⑰없음	32	10~11	-	울곡기념도서관 Y359976
	⑱趙生員傳	31	12	병진년	울곡기념도서관 Y359989
	⑲조생원전이라	49	10	-	울곡기념도서관 Y360204
	⑳조생원전나라	56	8~12	-	울곡기념도서관 Y361134

표에서 보듯이 『조생원전』의 분량은 대부분 낙장인 을⑫를 제외하고 비교해 보면 적게는 16장, 많게는 74장으로 그 편폭이 다양하다. 분량 차이는 면별 행수가 다르고 그 자수도 일정하지 않은 물리적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가늠해보기 위해 이본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9종을 가린 뒤 원문을 입력해 계량화하는 분석 방식을 새롭게 적용했다. 실제 분량 차이뿐만 아니라 서사 담론의 변이를 추적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작품 전체를 입력했다.

출 처	서 명	면수	자 수	단어수	원고량
장서각②	조성원전이라	80	22,107	6,804	151.0
장서각③	조씨전이라	74	21,847	6,414	146.7
김광순③	선설 조성원전	65	18,131	5,670	125.3
박순호②	묘성원전	80	20,464	6,303	139.2
박순호⑥	조성원전 권지단나라	100	21,947	6,505	148.0
박순호⑫	조성원전이라	108	24,965	7,835	169.4
하강진①	조활립전	58	17,995	5,853	125.6
하강진②	조성원전이라	64	18,888	6,199	130.9
울곡도서관⑬	조성원전이라	64	11,742	3,485	80.1

이외 나머지 작품을 모두 입력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위 표에서 보듯이 이본의 자수 규모는 2만자 안팎이다.¹⁷⁾ 이중 최다 분량은 박⑫로 24,965자이고, 최소 분량은 울⑬으로 11,742자이다. 최다와 최소를 대비하면 자수는 약 1만 3천자, 단어 수는 4천 4백 개, 원고지로는 90장 정도로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규모로 보건대 결코 간과할 일은 아니다. 분량 차이는 여러 층위의 문헌 변이를 함의한다. 본문의 전화 양상은 필사자의 생리적 작용에 따른 무의적인 변화, 개인적 기호나 시대적 요청에 의한 의식적인 변화에 기인한다.¹⁸⁾ 특히 탈락이나 생략, 축약이나 첨가 등의 본문 변이가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각주를 통해 예시하는 문헌의 내적 변화를 기저로 삼고 또 서지 특징을 고려하면서 이본의 양상과 그 선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17) 고소설의 정확한 분량 산출은 흔치 않은데, 최윤식은 앞의 논문 50-51쪽에서 장②는 약 19,200자, 장③은 약 14,600자라 했고, 전용문(1990) 또한 앞의 논문 397쪽에서 두 작품을 1만여 자로 추산했으나 실제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18) 무의식적 변화는 착오·탈락·첨가 반복에서, 의식적인 변화는 본문 변경, 본문 생략, 어구의 전위, 어사의 전환에서 발생한다. 류탁일, 『완판 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5, 221-232쪽 ; 류탁일,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 7-9쪽, 243-244쪽.

장①은 필사기가 있는 96면이 낙질이며, 면마다 하단부의 판독이 곤란한 글자와 함께 자구 누락이나 어휘 선택의 오류로 전후 연결이 어색한 곳이 더러 있다.¹⁹⁾ 장③은 내제가 ‘조씨전이라’이고, 표제는 ‘趙生員傳’이다. 중간 중간에 먹칠한 글자가 있고, 어색한 문장이 여러 군데 발견된다.²⁰⁾ 이 두 작품은 박⑥과 대비해 종결부까지 내용이 비슷하다.

장②는 율⑧과 종결부까지 약간의 글자를 제외하고 거의 동일하다. 박③도 내용이 같으나 텍스트상의 결함이 있다.

김①은 『조한림전』 서명이 특이하다. 필사 시기 ‘임인년’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하①의 『조활림전』으로 볼 때 1962년이다.²¹⁾

김②는 김④, 박⑫와 종결부까지 담론 형식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김②는 문맥 이해에 지장을 주는 문장 생략이 더러 있다.²²⁾

김③은 김②와 문장 구성이 대부분 같지만 이질적인 세부 요소가 발견된다. 그리고 문장이나 발화 주체의 생략이 많고,²³⁾ 탈락 글자나 소리나는 대로 적은 단어가 산재해 있다. 특히 그리고 형태 서지를 살펴보면 앞부분 네 쪽이 일부 훼손되었고, 381쪽부터 383쪽까지 현대 표기법으로 낙장을 보충했다.

19) 예를 들면, “사문을 쭈다리셔 일으디 조싱이 스문을 열고 식경으로 느려와셔”(10면), “자식 영으 손을 잡고 아득하다”(14면), “셔간을 드리고 옛즈되 조싱을 이별흔 제 여러 히라”(19면), “아부임은 경이 지극흐면 차지리라”(75면) 등이다.

20) 예를 들면, “궁글다가 피 흘이고 드러가이 그 안이”(38면), “군신이 불행하면 즈식의 위틴 도리”(42면), “부즈유친 웃듬이라 천형 부친은 어미 복중의 싱길 적의”(57-58면) 등이다.

21) 근래 출간된 백운용 역주, 『조한림전』 해제, 『조한림전·서해무릉기』, 박이정, 2015, 17쪽에서 연도를 1962년으로 추정한 바 있다.

22) 예를 들면, “다년 슈적 진닌지라 종즈 종부 중흔 지”(175쪽), “교관을 흐자흐니 원슈 갑기 망연하다”(191쪽), “초년이 승쳐흐고 썩박기 이 익운 눈십이”(199쪽), “원슈을 목척 중심이 미즈두고 썩만 난은”(201쪽), “슈화를 무렵시고 승전이 군박흐며”(212쪽), “서람당 시임 도입흐실 말술 아부임 느시의”(247쪽) 등이다.

23) 예를 들면, “안천통곡 하난 말리 산천이 요열하고”(344쪽), “비알하여 원슈 갑고 함기 놀나셔”(349쪽) 등이다.

김④는 한글 표기법으로 보아 20세기 이후 필사된 것으로 보이고, 필사자의 언어 수준이 높지 않아 구어 표기가 흔하게 존재한다. 영인 상태를 보면 174쪽과 175쪽 사이, 223쪽과 224쪽 사이에 들어가야 할 원문이 누락되었다. 또 213~214쪽과 215~216쪽의 순서가 서로 뒤바뀌었다.

김동욱본은 나손본에 영인되어 있으나 원본은 울곡기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후 거론할 때에는 울⑨로 표시한다.

박①은 후반부의 문장과 종결부가 누락된 불완전한 텍스트이다. 뿐만 아니라 조영의 혼수 물건이 대폭 생략되었고, 신랑 치레는 모두 생략되었으며, 신방 치레도 대부분 축소되었다. 조생원의 유람 경로 또한 생략된 부분이 많다.

박②(임인본)는 약간의 문자 출입을 제외하면 박태상본과 종결부까지 거의 같은 내용이고, 울⑩과는 종결부 정도만 다를 뿐이다.

박③은 울⑧, 장②와 종결부까지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어구 생략과 형태소 표기의 오류가 상대적으로 많다.²⁴⁾ 형태 서지를 보면 1~2쪽과 22~23쪽의 본문이 훼손되었고, 게다가 27~56쪽은 영인 과정에서 편집이 형클어졌다.

박④는 서사 문장의 생략과 새로운 첨입이 많아 매우 특색 있는 텍스트이다. 현대 표기법으로 띄어쓰기를 한 점에서 고소설을 모방한 아류 작품이라 하겠다. 물론 저본이 발견되면 이본의 계보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박⑤는 문장이나 단어 생략, 조사나 어미 생략, 단어의 표기 오류나 음절 탈락 등이 다수 분포해²⁵⁾ 텍스트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다. 더욱이

24) 예를 들면, “슈금지환 옥지환은 조가연이 욕심이 간절하야”(11쪽), “박구와 너여 제 자식 주랴 한이 조싱원이 초당의 누워”(11쪽), “일만 이천 노푼 봉의 빅여근 난 조싱원이 서암당으”(13쪽), “천힘으로 보티혀여 짚을 나의신면 서영 봉사도 바드시오”(45쪽) 등이다.

25) 예를 들면, “영의 나의 십세라 사방 연비 난의 할 듯 전이 없다”(283쪽), “모친의 입중시 원이 조싱원을 생각하되 십세동 어린 거시”(286쪽) 등이다.

374쪽과 375쪽 사이에 들어가야 할 조생원과 장씨부인의 고부간 재회 장면이 원문 자체에 누락되었고, 또 365쪽과 376쪽의 배열이 바뀐 상태이다.

박⑥은 장③과 종결부까지 내용이 흡사하고, 율⑩의 축약 형태이다. 불완전한 문장은 거의 없지만 자구를 가감한 까닭에 앞의 표처럼 글자 수가 100자 늘어났다.

박⑦은 필사 연도만 없을 뿐 내용이 박태상본을 현대 어법으로 그대로 베꼈다. 하지만 536쪽 4행부터 538쪽까지는 544쪽 11행 이후로 이동해야 서사 맥락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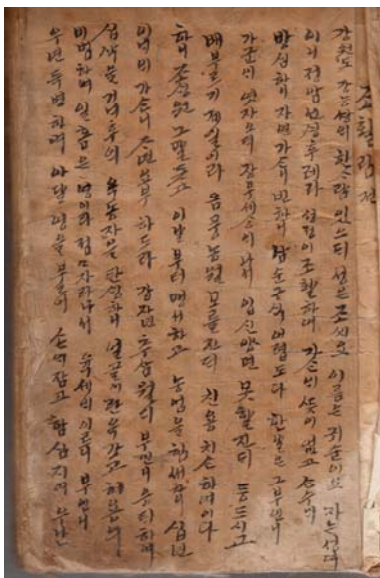
박⑧은 내용 시작 단계부터 이씨부인이 생전에 마련한 혼수물 차례 일부까지 약 16쪽이 누락되어 텍스트로서 결함이 많은 낙장본이다. 그리고 편집상 착오가 발생한 536쪽 4행부터 538쪽까지는 544쪽 11행 이후로 옮겨야 한다. 또한 낙장을 포함해서 총 9쪽을 현대 맞춤법 표기로 보완했다.

박⑨는 박②와 담론 형식이 대체로 유사하나 종결부가 없다. 앞부분 총 7쪽이 일부 훼손된 상태이므로 선본은 되지 못한다.

박⑩은 박②와 유사한 면은 있지만 조영의 잘린 머리가 보관된 장소에 대한 서술이 없다. 이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조천행이 모친에게 행장을 차려달라는 대목과 수월암 벽상의 조부 글씨를 보고 비는 대목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텍스트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조생원이 귀향을 앞두고 부른 노래 중 앞부분 1쪽 정도의 분량이 원본(761쪽) 자체에 누락되어 선본이 되기에는 미흡하다.

박⑪은 봉사 예언이 나오는 이본들과 내용상 대동소이하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남자는 허객이라”라는 표현과 배씨부인을 마춧대에 매단 장면이 없으며, 조생원의 유람 경로 중 울릉도가 빠졌다. 그리고 낙자와 오자, 개성적인 문체가 간간히 보인다. 현대 표기법으로 필사된 점에서 저본이 따로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박⑫는 김②·④와 종결부까지 내용이 대체로 비슷하다. 부정확한 어구가 있지만²⁶⁾ 두 작품에 비해서 비교적 오류가 적다. 1~8쪽의 본문 훼손으로 망실된 일부 글자를 제외하면 선본에 속한다. 율⑮도 이와 유사하나 상대적으로 서사 문장이 약간 적다.



하강진 소장 「조활립전」 1면

박태상본은 박⑫에 누락된 조괄의 장평 몰사, 장씨부인이 사당에서 낭군의 머리를 잡고 통곡하는 장면, 조기순의 평양 유람, 조천행의 함경도 심방 등이 모두 들어 있다. 또 서사 상태가 양호하고 필사 오기가 거의 없는 선본이다. 그리고 필사자 거주지로 ‘산서면’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 면은 1914년 신설된 전북 장수군의 일부이므로 필사년도 ‘정스’는 1917년으로 확정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하①(그림 참조)은 한지에 정서로 필사된 29장본이다. 행수는 면당 10행이며, 크기는 16.5×28cm²⁷⁾이다. 끝장 필사기의 ‘乙未’는 1955년이 분명하다.²⁷⁾ 그리고 제목이 같은 김①과 비교할 때 약간의 차이²⁸⁾ 말고는 단

26) 예를 들면, “어진 선싱 정훈 후의 착실리 공부하야 주읍소서”(13쪽), “고관을 흐 자흔이 원슈 갑기 망연하드”(38쪽), “조상 붕스 금정 입고 시부님도 귀음 보 와”(74쪽), “서랍당 신음 도입호신 말삼 아부임 느시의”(88쪽) 등이다.
 27) 현대 표기법과 띄어쓰기를 준용한 사실과 더불어, 특히 이 책의 끝에 합철된 가사 『敬天歌』는 『조활립전』의 필사시기를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이 가사는 1949년 좌우익의 살벌한 갈등 속에 정부의 강제 명령에 따라 산촌에서 일반 민가로 소개되어 삶을 겨우겨우 지탱하던 화자가 천도교를 주지로 삼아 환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28) 김①의 종결부 내용이 상대적으로 자세하다. 그리고 “배가년니 두 자식을 한 칼로 목 버히고”(34면), “박복한 이 사람요”(35면)라는 담론은 하①에만, “장장 추야 깊은 밤에 잠들 수 전혀 없다 자야 밤에 일어나서 정화수 떠다노코”라는 담

어의 조사나 어미까지도 거의 같다.

하②는 한지에 반홀림체로 필사된 32장본이다. 행수는 면당 12~13행이며, 크기는 20.5×29cm이다. 특이하게도 조기순의 후처 성이 배씨가 아닌 ‘백씨’로 나온다. 문장 구성은 김②와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문장 축약과 불분명한 단어가 많다.

울①은 조생원이 유랑하기 직전에 쇠작지를 범인으로 단정한 뒤 배부인의 발명을 생략한 채 곧바로 치죄를 명하는 장면이 특이하다.²⁹⁾ 또한 조천행의 탐색 여정에 전국 각도의 여러 지명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필사한 문장의 호응이 이상할 경우 해당 글자에 上, 下자를 표시했다.

울③은 대체로 울⑩과 비슷한 서사구조를 지니나 종결부에서 차이가 난다.

울⑤는 서사담론이 박⑫와 대체로 유사하다. 하지만 조생원이 설암당의 만류에도 혼사를 강행한 대목과 후처의 말을 끝이듣고 혼수 물건 바뀐 사실을 무시하는 장면이 누락되었다. 또 조생원의 방랑 코스 중 수월암 이외는 간략히 처리함으로써 손자 조천행과 상봉할 장소가 암시되지 않았다. 1면과 2면이 훼손되었고, 어색한 문장이 더러 있다.³⁰⁾

울⑥은 서사담론이 울⑩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훼손된 마지막 장의 종결부는 박⑫의 내용과 같다.

울⑧은 장②와 서사담론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³¹⁾ 끝장에 “대정

론은 김①(181쪽)에만 나타난다.

29) 해당 대목은 “금안준마 다 바리고 죽장망해로 횡장을 녹고 쇠죽지 놈을 잡아드려 슈죄호는마 호는 마리 네 죄상을 짐죽한지 오턴지라 괴망 말고 종실 직고하라~식작진 놈이 하 일 업셔 울며 하난 마리 이 지경”(67~68면)이다.

30) 예를 들면, “순임군을 죽이고저 왈 업동서안 춘바람의 호형으로 계모가 불칙히여 고금스를 싱각호여”(3면), “밤춤 드니 포식 후의 제일미라 안석의 비계시이”(21면) 등이다.

31) 심지어 “경포디에 중화호고 이화동 다달르니”(울⑧, 11면)와 “경보디 중화호고 이화동 다달르니”(장②, 16면)처럼 생략된 부분까지 동일하다. 대개의 이본에서는 “경포대 중화하고 양양지경 바라보니 낙산사 저기로다 낙산사 저 중들아 백년이 얼마전대 청춘을 허송하고 동방회축을 모르나고 이화동 다다르니”(현대어

2년 11월 27일”이라는 필사시기를 확실하게 기입해두었고, 서사 오기가 적을뿐더러 상대적으로 내용이 더 충실하다.

울⑨는 낙자, 오자, 난해 어구 등이 허다하다. 또 문장 축약이나 발화 주체의 생략이 빈번하다. 특히 핵심 서사 요소인 쇠작지의 ‘산증(疝症)’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사건 전개에 긴밀성이 떨어진다.

울⑩은 문자 이해도가 낮은 필사자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에 표기 오류, 문장 축약이나 생략이 많아 다른 이본과 비교해야만 원래의 뜻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리고 조영의 출생 화소가 없고, 26면~27면 및 45~46면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 상당량 누락되어 서사 전개가 영성하다. 게다가 56면부터 62면까지 조생원의 강산 유람과 조천행의 출생이 뒤섞여 구성 상태가 불완전하다.

울⑪은 박⑤처럼 천상에서 적강한 아들을 얻는 이씨부인의 태몽을 설정했다. 종결부를 제외하면 축약이 다소 있으나 울⑬과 서사담론이 매우 유사하다. 필사 오류가 적어 선본에 속한다.

울⑬은 시간적 배경 설정과 서사담론의 형식이 여타 이본들에 비해 독특하다. 내용이 대폭 축약되었으나 문장 오류가 거의 없다.

울⑮는 울⑤와 비교할 때 필사 오류가 적고 그 작품에 누락된 조생원의 노정이 상세히 들어 있으나 박⑫보다는 서사 분량이 적은 편이다.

울⑯은 이 작품의 확대 성격을 지닌 박⑥에 추가된 서사단락과 종결부를 제외한 나머지의 서사담론 형식이 거의 일치한다. 문장 축약으로 어긋난 문맥이 간간히 보인다.³²⁾

울⑱은 내용이 유사한 박②에 비해 오류가 거의 없고, 조영의 잘린 머리가 감춰진 장소와 조생원의 방랑 코스 설정이 약간 다를 뿐이다.

표기)로 나온다.

32) 예를 들면, “취비한 중의 집에 동자를 불너 누누 당부하는 마리”(9면), “드르이 계모임 성정이 교팍하야 조석변덕혼다 하니 시부임만 가중 화근이오”(19면), “안동으로 도라와서 악양 화기 귀경호고”(45-46면), “사창 압페 울고 가서 사람 다러 남히 금산 화방사의셔”(58-59면) 등이다.

이외의 작품은 미완성본이거나 낙장본이다. 율②는 종결부 일부가 훼손되었고, 그 이전까지의 내용은 율⑬과 유사하다. 율④는 마지막 장에 정유년 필사기가 있지만 조생원이 며느리와 이별하고 유람을 떠나는 이후의 사건부터 누락된 미완성본이다. 율⑦은 마지막 장에 기사년 필사기와 후기가 있지만 1·2면이 낙장이고, 조손과 장씨부인이 상봉한 전개부 말미가 누락된 미완성본이다. 율⑫는 표지에 무인년 필사기가 있으나 전반부만 필사된 7장의 낙장본이다. 율⑭는 장씨부인이 누명을 쓰고 시택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본문이 필사되어 있다. 또 범인의 색출과 치죄, 조천행의 조부 탐색 등이 서로 뒤섞여 텍스트로서 결합이 많다. 율⑰은 도입부 시작과 전개부의 마지막, 즉 고향에서 세 사람이 상봉하는 장면이 누락되었다. 율⑱는 조생원이 손자를 만나 고향에 당도한 대목부터 없는 데, 그 이전까지의 내용은 율⑬과 유사하다. 율⑳은 전개부가 완전한 끝맺음이 되지 않았으나 내용은 율⑬과 유사하다.

서사담론의 변개는 『조생원전』의 선본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문헌 변화는 작자의 손을 떠난 작품이 대중들 사이를 떠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개작에 의한 변모를 겪었던³³⁾ 필사본 이본의 일반적 성향과 같은 궤적이다. 개작 과정에서 표기 오류나 자구 탈락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중 서사 전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보편적 화소의 대거 누락이나 새로운 화소의 침입은 상위 유형을 설정하거나 그 하위 단계로 세분화할 때 밀도 있게 고찰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서지의 물리적 상태는 책의 전수 과정 혹은 영인본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주요 변인을 감안할 때 이본들 중에서 장②, 김②, 박②·⑥·⑫, 박태상본, 하①, 율①·③·⑧·⑪·⑬·⑯이 비교적 선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참고해서 서사구조의 변이에 따른 이본 유형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33) 김일렬, 『고전소설신론』, 새문사, 1993, 84쪽.

3. 이본의 서사 구조와 유형 분류

조선시대는 삼강오륜과 삼종지례의 이념 질서를 철저히 준수했고, 효열은 지역사회에서 국가 단위로 이어지는 수직 체제 속에서 그 가치가 중시되었다.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공고히 하는 강상 윤리의 실천과 공식적인 정표 시책은 교학서, 행실도, 전기 텍스트 등의 생산과 유통을 활발히 진작했다. 문학텍스트로서는 규방가사의 열녀 담론이 대표적이고,³⁴⁾ 서사적 상상력으로 효열의 문제를 형상화한 작품이 바로 『조생원전』이다.³⁵⁾ 이본들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도입부, 두 중심사건이 전개되는 전후반부, 종결부로 나누어 서사 개요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도입부]

1. 가난한 조기순이 이씨부인의 권유로 농업에 힘써 부자가 되다.
2. 이씨부인이 아들 조영이 6세 되던 해에 병을 얻어 죽다.
3. 조기순이 집안일을 처리할 수 없어 배씨 가문에게 재취하다.
4. 후처 배씨가 아들을 연년생으로 낳은 뒤 지극히 편애하다.
5. 조영이 계모 구박을 피해 금강산 수월암에 들어가 학업하다.

[전반부]

6. 조기순이 조영을 집으로 불러 들여 장씨 가문에 결혼시키다.
7. 조영이 신혼 첫날밤에 목이 잘려 죽는 흉사가 벌어지다.
8. 조기순이 아들의 시신을 본가로 운구해와 행낭에 빈소를 차리다.
9. 조기순이 며느리의 꿈대로 아들의 잘린 머리를 사당에서 발견하다.
10. 조기순이 하인 최작지를 문초해 배씨 사주로 벌인 사건임을 밝히다.
11. 조기순이 이들과 배씨 소생을 죽여 복수하고 며느리는 누명을 벗다.

34)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420-459쪽.

35) 가정소설의 생성과 전개는 이원수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경남대 출판부, 1997)에서 체계적으로 살폈다.

[후반부]

12. 조기순이 기구한 세상사에 환멸을 느껴 팔도유람을 결행하다.
13. 조천행이 조부가 떠난 지 대여섯 달 만에 유복자로 태어나다.
14. 조천행이 10세 때 모친 장씨의 명령으로 조부를 찾으러 떠나다.
15. 조천행이 수탐한 지 6년 만에 남해 화방사에서 조부와 상봉하다.
16. 조기순이 손자와 함께 귀향해 16년 만에 며느리를 재회하다.
17. 장씨부인이 시부,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다.

[종결부]

18. 장씨부인이 조정으로부터 만고 열녀로 정려되다.
19. 조천행이 높은 관직에 오르고 선치로 이름을 떨치다.

[필사기]

각 이본은 위의 개요를 기저로 세밀하게 조직되어 있다. 조생원은 가산을 일구는 데 큰 역할을 하던 부인 이씨가 죽음으로써 후처 배씨를 얻게 되고, 이 후처가 자식 둘을 낳은 이후로 변심해 이복 아들 조영을 학대한다. 그는 계모의 구박을 피해 금강산에 들어가 공부하던 중 부친의 명령을 받고 장씨문에 장가를 들고, 결혼 첫날밤에 하인 쇠작지의 범행으로 목이 잘리는 참사를 당한다. 조생원이 집안 사당에서 조영의 잘린 머리를 찾고, 공범인 배부인과 쇠작지를 처단한 뒤 전국을 방랑하게 된다. 홀로 수절하던 장씨부인은 유복자 조천행을 시켜 조부를 찾아오게 한 뒤 16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한다는 내용이다.

『조생원전』의 중심서사는 ‘범인 찾기-원수 갚기’와 ‘시부(조부) 찾기-정렬(효행) 실천’의 구조로 전개된다. 종결부는 가족공동체를 복원하고 난 뒤의 중심인물의 상황이나 효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반영한다.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사건이 없기에 삽화적 성격을 지닌다. 서사구조의 긴밀성을 떠나 그 편쪽은 오로지 필사자의 선택에 달렸기에 종결부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핵심 구조를 중심으로 이본 유형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우선 개요 7에 뒤의 서사 담론이 주목된다. 조영의 목이 끔찍하게 잘린 그 시점에 사돈집 외당에서 잠깐 졸던 조생원의 꿈속에 죽은 이씨부인이 나타나 아들을 부득이 데리고 떠나니 집안일을 허투루 처리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그를 심하게 원망하는 대목이 있다.³⁶⁾ 그 다음에 개요 8이 이어진다.

그리고 개요 15의 서사 담론이다. 조천행이 모친의 명령으로 집을 떠난 뒤 금강산 수월암에서 조부의 존재를 어렴풋이 확인하고는 경기도를 거쳐 한양을 찾는다. 조부를 수탐한 지 3년째 되던 해로 거기서 봉사를 우연히 만나 조부가 남방에 있다는 점괘를 얻고 상봉의 희망을 다시 갖는 한편, 재물을 갖고 달아난 동거녀가 앞을 지나친들 볼 수 없다는 봉사의 탄식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에 천행은 서둘러 남방인 삼남으로 길을 떠나게 된다.

이 두 가지 서사 담론은 사건 전개와 밀접히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즉 두 화소는 반드시 짝을 이루어 배열되며 어느 하나만 나오지 않는다. 이본 김②~④, 박④·⑪·⑫, 율⑤·⑮, 하②가 바로 이런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본들의 종결부는 조천행의 결혼, 장씨부인의 정렬부인 표창, 조천행의 장원 급제와 내외직 벼슬, 조생원의 호상 등을 택해 앞뒤로 적절히 안배했다.

다만 박④의 경우, 이씨부인이 조생원을 권면해 부자가 된 사실과 그녀가 임종 직전에 아들과 남편에게 당부하는 유언을 생략한 채, 부자 조생원이 상처한 뒤 배씨를 취처했다고 도입부에 곧바로 서술했다. 곧 개요 1과 2가 없는 셈이다.

또 김③의 경우, 개요 10과 관련된 서사로 배부인이 하인 쇠작지에게

36) 해당 대목은 “잇썩 조부지 외당의 조우다가 비몽간의 망치 이씨 흐난 마리 자식 영이 나올 보고 기련 흙기 갈나 흐이 불상하여 다리がい 집안 조처 그리 마소 비박이 자심흐거날”(박⑫, 36쪽)이다.

‘속양’을 약속한 부분이 빠졌고, 그 연장선에서 조생원이 며느리에게 ‘개가’ 대신 ‘수절’을 명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작품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단순한 문헌 변화가 아니라 필사자의 의도가 적극적으로 개입된 결과라 판단된다. 따라서 각기 다른 유형으로 내세울 수 있겠다.

한편, 개요 7의 亡妻의 등장과 개요 15의 봉사 출현 화소가 없는 이본들이 존재한다. 이 경우 대개 조천행이 조부를 찾아가는 여정이 위의 유형과는 다르게 서술된다. 그가 수월암에서 조부의 존재 흔적을 막연하게나마 인지하고는 경기도로 내려온 뒤 한양에 들어가 곳곳을 찾아본다. 그리고 황해도와 평안도를 거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삼남 지역을 두루 탐색한 뒤 남해 화방사로 들어가 상봉한 뒤 조손이 귀향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은 장①~③, 김①, 박①~③과 ⑤~⑩, 박태상본, 하①, 울①·③·⑥·⑧~⑪·⑬·⑯·⑱로 이본 중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중 박①·⑨와 울⑩·⑯은 종결부가 없고, 박⑦·⑩과 박태상본과 울⑪은 매우 간략하다. 반면에 박⑤·⑥·⑧은 종결부 분량이 꽤 길어 장씨부인의 표창, 가산과 전답의 증식, 조천행의 혼사, 조천행의 과거 급제와 출사 등의 화소가 여러 방식으로 조합되어 있다.

또 박⑤와 울⑪의 경우를 보면 개요 2 앞에 이씨부인이 조영의 태몽을 꾸는 이색적인 화소가 첨입되었다. 전자는 후자에 비해 종결부가 상당히 길고 내용이 독특하다. 곧 조천행이 가산을 풍족하게 일군 다음에 장원급제해 팔도어사가 되고 서울의 김덕보 승상의 딸과 혼인해 지내다가 한림과 승상으로 승직하고서는 전 가족이 서울로 이사한 뒤 조생원과 장씨부인과 조천행의 아내가 모두 봉작을 받는다는 등의 화소이다.

울①은 개요 12 다음에 장진사가 사위의 불행한 죽음과 딸의 누명에 충격을 받아 병으로 죽고 그 아내도 자살한 사실과 함께 산소에 가서 성묘한 화소를 첨가했다. 또 황제에게 효도가 알려져 조천행은 높은 관직에 오르고, 조생원과 장씨부인에게 품직이 하사되었다는 내용의 종결부

를 추가했다.

장②와 박③과 율⑧에는 조천행이 한양에서 조부와 함께 머물며 장원 급제한 뒤 임금으로부터 조부의 좌참의 직첩과 모친의 정절부인 직첩을 하사받고 득의양양하게 금의환향하는 화소가 추가되었다. 이는 대개의 이본에서 종결부에 있으나 여기서는 후반부 사건의 말미에 끌어올렸다.

김①과 하①의 경우 개요 7과 8 사이에 서술자가 배부인의 사주로 벌어진 사건임을 미리 알려주는 담론을 추가함으로써³⁷⁾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던 독자의 예상을 빚나가는 이색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 중심인물에 대한 정려 표창을 종결부에 요약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아니라 후반부 끝에 공식적인 장계문을 삽입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행해진 보상의 실재를 부각시킨 점이 변별적이다. 흔히 보이는 종결부의 형식과 차이가 있기에 이본의 한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율⑩은 시간적 배경이 철종 시대로 설정되었는데, 이본 중에서는 유일하다. 서사담론의 형식도 여타 이본들과 사뭇 다르다. 내용이 대폭 축약되었으니, 예컨대 조생원이 산중 때문에 동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죄작지를 단지 상전의 명을 거역한다는 이유로 다그쳐 범행 전모를 밝혀내며, 범인 두 사람을 치죄하는 과정도 요약적으로 서술했다. 뿐만 아니라 조생원의 방랑 여정이 모두 생략되었고, 조천행의 탐색 노정도 조부의 거처에 대한 결정적 정보를 얻는 순천 송광사와 상봉 장소인 남해 화방사만이 구체화되어 있다.

이상의 검토 사항에 비추어 보건대 일부 낙장본을 제외하고 『조생원전』의 이본들을 아래의 유형처럼 정리할 수 있다.

37) “신랑은 옆이 누엇스나 비린이가 낭장하다 각설 있씩 배부인니 죄작지를 불어 하난 말이 초행 뒤를 싸라가서 장진사씩 근처이 은신하였다가 영이 목을 베히오면 가수를 반분하고 속양하야 주마 하니 죄작지 그 말 듯고 괴변을 지엇드라 잇씩 신부 가슴이 째작하여 손으로 만져보니 머리 업난 신체로다”(하①, 17~18면)의 밑줄 친 부분이다.

I 유형(사건 전개부에 망처 등장과 봉사 출현의 화소 없음)

I-1 장①·③, 박①·②·⑥~⑩, 박태상본, 율③·⑥·⑨·⑬·⑱
·⑲.

I-2 박⑤·율⑪ : 이씨부인의 대몽 신설(도입부).

I-3 율① : 장진사 부부의 죽음과 그 아들의 거취(후반부).

I-4 장②, 박③, 율⑧ : 조천행이 장원급제한 뒤 금의환향(후반부).

I-5 김①, 하① : 정려 표창의 공식 절차 삽입(후반부).

I-6 율⑬ : 철종 시대를 배경으로 설정, 서술담론의 특이성.

II 유형(개요 7의 망처 등장과 개요 15의 봉사 출현 화소 있음)

II-1 김②·김④, 박⑪·⑫, 율⑤·⑮, 하②.

II-2 박④ : 이씨부인의 죽음 과정과 유언 없음(도입부).

II-3 김③ : 조생원이 며느리에게 수절 요구(후반부).

4. 이본별 서사 담론 변이의 특징

어구의 단순한 변용이나 사건 구조에 긴밀히 관여한 담론은 앞에서 다루었으므로 제외하고 작품 분위기와 이야기 전개에 영향을 주는 담론의 축약이나 확대, 내용 변개 등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서사 담론의 변이에 따른 이본들의 분량 차이는 필사자의 주체적 수용 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필사 연대의 절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시기를 알 수 있는 이본이 극히 소수이므로 작품 선후의 변화보다는 횡적인 변이 양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서사 의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사건 전개의 합리성 추구

서사자는 저본의 서사 담론이 합리성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었다고 판

단할 경우 자기 방식의 목소리를 담아 이본을 생산한다. 아래는 목 없는 남편이 빈소에서 피를 흘리며 다니다가 사당으로 들어가는 꿈속 일을 확인해보자며 애걸복걸하는 며느리 장씨부인에게 조생원이 반응한 대목이다.

[가] 조생원 니 말 듯고 중심이 월적흐야 되답흐되 너 너의 몽중의 즈식의 일른 딸이 이리이리 선몽흐니 수월암 설암당의 회답셔도 여츠여츠 흐여시니 꿈인즉 허망흐나 일른직 고이흐다 의혹을 면츠흐고 등축의 불을 키고 스면으로 살펴보니 완전흐 피 흔적이 반소방에 흘러써며 츠츠 드러나거늘 피 흔적을 다라가서 스당문을 열고 보니 즈식의 일른 머리 문턱 안의 노여거늘 형용을 살펴보니 낫빋찬 여전흐고 안목이 불별흐단(장③, 38~39면).

[나] 조생원이 그 말 듯고 중심은 소중흐되 싱각고 싱각흐니 말인직 허망흐 말히는 일인직 피이흐다 허실간에 나가보와 의혹을 면차흐고 등축의 불을 키고 스면으로 살펴보이 완전한 피 흔적이 빈소방에도 흘러써며 마당에도 흘러써며 섬뜰에도 흘러거날 피 흔적을 차잠차잠 팔라가니 휘면 스당 근처로 힝흐야거날 즈서이 살펴보니 사당 아리까지 와서 흔적이 찌쳐거날 중심에 싱각흐되 즈식으 일 은 머리 정영 이고디 못처썰진디 스당의 계웁서 조상으 실영님덜 이 이려흔 이를 무심이 여긔리요 몬자계 몽중스를 싱각흐니 조상 의 실영님네 죽근 즈식의 철천지원흔을 집피 아라 현몽으로 인도 흐여 쥬심이라 흐고 피 흔적을 쓴친 꼭질 짜라 파보니 쑥을 집피 파고 독을 못고 그 안에 긴봉흐야 무더더라 열고 본직 죽근 자식 머리 독안에 딛계신이 형용이 여전흐고 만목이 분명흐다(박②, 794~796쪽).

[다] 조부지 환장든 중의 자식 머리 차질지라 흐이 실승 허망흐나 허허 실실 차지리라 흐고 발지죽 소리 업시 가만가만 나가면서 등축을 발키고 사면을 살피보이 와연흐 피 흔적이 빈소방의 저저시면 온 집의 뿌리거날 피 흔적 차자 가서 스당문을 열고 보이 자식의 이른 머리 문안의 인난지라(박②, 51~52쪽).

며느리의 몽중사에서 암시한 것처럼 조생원이 자식의 잃은 머리를 사당 안에서 결국 발견한 사실은 공통적이다. 하지만 이야기 서술 방식은 상이하다. [가]의 “수월암 설암당의 회답서도 여츠여츠 흥여시니”라는 삽입구는 조생원이 며느리의 눈물겨운 호소를 마지못해 수용하게 하는 소설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설암당의 회답서에는 혼사를 하면 아들의 수명이 단축되고 집안에 불길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본 공통의 담론과 함께 “여혹 잇거던 신부는 ㅁ웁소서”라는 문장이 첨가되어 있다. 이는 향후 조생원이 며느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않기를 바라는 서사자의 복선 심리가 깔린 것으로 다른 이본들에 비해 조생원의 ‘우매한’ 인물 성격을 더욱 강조한다. 회답서의 기억 재생은 원수 같이 미워하던 며느리에게 그나마 일말의 마음을 여는 계기로 작동함으로써 사건 해결의 인과성을 획득한다. 이렇게 되면 조생원이 설암당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세우다가 액사를 당했다고 스스로 뒤늦게 후회하는 이본 공통의 화소에 더욱 밀착된 정서적 공감대를 갖는다.

[나]는 이본들의 기본 화소를 공통으로 하되 [가]·[다]와 담론의 차이가 뚜렷하다. 조생원은 피 흔적이 끊긴 후면의 사당 아래를 은닉 장소로 특정한 뒤 조상 신령들의 도움으로 아들의 잘린 머리를 틀림없이 찾게 될 것이라 내심 고대한다. 이에 땅 깊이 파본 결과 독이 묻혀 있었고 그 안에 밀봉된 아들 머리가 담겨있었다. 대개의 이본에서 사당 안 혹은 사당 문턱으로 설정된 것에 비하면 진술이 대단히 구체적이다. 설령 사당을 일 년에 몇 번 개방하지 않을지라도 사당 문을 열면 바로 알아차릴 정도로 머리를 감추었다고 서술한 대목은 서사 감각이 예리한 독자들에게는 다소 허술해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담론의 약점은 “땅 속 깊이 파 묻은 독”의 신설로 해결하고 있다. 배부인과 쇠작지의 엽기적 범행이 사건 전후로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고, 그들의 공모가 하마터면 성공할 뻔했을 것이라는 논리적 정합성을 갖는데 기여한다.

[다]는 이본의 보편적 서술 형식을 따라 서술 형식이 간요해 보이나

여러 곳에서 담론이 추가되어 실은 분량이 대거 늘어난 작품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나]처럼 서건 전개와 합리성을 부여한 부분이 없지만 다른 장면에서는 서사 단락의 독자성이 발휘된 이본도 있다.

[라] 비슈검을 너여주며 천만 당부하시기로 상놈의 소견으로 체물을 욕심내어 그 말만 고지듯고 만상제죄을 지여신니 죽이난 여사로드 이왕 죽을 놈의 추호도 기망하릿고(박⑤, 338쪽).

[마] 비슈검을 내여주며 천만 번 부탁하기로 상놈의 소견이라 재물만 욕심내어 강상지죄 지엿스니 죽기난 예사로되 임이 죽을 놈이 추호인들 쇠기리오니까(박④, 206~207쪽).

[바] 비조금 너여놋코 소으면서 빅분 등부하난 마리 너 말되로 안 드러며 이 칼로 네 놈 죽이고 말 너즌키 홀 거시니 네 쫓되로 호여 보르 호거날 승놈의 소견으로 지물만 욕심니고 강슨지제을 지어시되 서방님 목을 바혀 어제 저역 밭중 드러 이리이리 호읍다가 스등 안의 여혀시이 기왕지 죽을 놈이 추호 기망호오릿가(울⑬, 48~49쪽).

쇠작지가 재물에 욕심을 내어 배부인의 사주를 받아 삼강오상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변명하고 있다. 유형과는 관계없이 대다수 이본은 이러한 담론 형식을 따른다. 그러나 [마]와 같은 유형인 [바]를 보면 쇠작지의 범행 동기로 특이하게도 배부인의 협박이 추가되어 있다. 쇠작지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속량이나 풍족한 재물에 유혹된 나머지 배부인의 주축을 선뜻 들었다고 말하기에는 아무래도 의심쩍은 데가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합당한 살인 동기가 더 보장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말을 “안 드러며 이 칼로 네 놈 죽이고”는 문장을 삽입함으로써 처리했다. 쇠작지의 처지에서 보면 이래저래 죽을 운명인 이상 배부인의 반인륜적인 제의를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알게 된다. 소설 독자이기도 한 필사자의 합리적 서사 의식을 엿볼 수 있다.

2) 세부 장면의 사실성 강화

이본의 파생은 장면의 극대화, 성격 묘사의 강화, 배경 지식의 확장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서사 담론은 장씨부인이 자신에게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조생원의 뒤를 따라 강릉 시택으로 향하는 대목이다.

- [가] 네 무산 명목으로 너집의 오단 말과 흥인 불너 무리치다 혼스하고 짜라오며 울면 불면 흥난 말이(장①, 35~36면).
- [나] 너 무신 면목으로 너집이 온단 말가 하인 불너 물이친이 한스하고 짜라오면 비려서 흥난 말리(김③, 345쪽).
- [다] 그러흥나 신체을 감장흥 연후의 설치을 흥리로다 흥고 흥인을 지촉 흥야 목 업난 신체을 상부의 덩글엇켜 실고 유디군을 지촉흥야 강능으로 내려올 제 정신 업난 저 신부난 뒤의 발상흥고 울면서 흥난 말이(장②, 25면).
- [라] 그러흥나 신체을 감장흥고 후일에 설치흥리라 흥고 흥인을 재촉흥야 목 업는 신체을 상부에 덩글러커 실고 유디군을 재촉흥야 강능에 너러올 제 靑山니 실퍼흥다 정신 업는 저 신부는 상부 뒤에 발상흥고 울면서 흥는 말리(울⑧, 16면).
- [마] 네 무산 면목으로 너집의 짜라오리 논박이 청양 업고 고육이 그지 업다 조부직 거동 보소 자식 상의 압시우고 실성흥 사람 갖치 인스도 여러 노코 언어도 요랑 업네 이 산 저 산 모령이며 너 건너고 직 넘을 제 영아 영아 오나 오나 우리 영아 어딴 가고 얼골리 안 비이노 되어 오나 흙기 갖가 앞피 가나 거 잇거라 천금동 우리 영아 만금동 우리 영아 저모도록 오난 길의 말 디답도 흥 변 업는 의가 답답 흥날임아 우리 영이 어딴 갓소 장기 갖다 오난 길의 회승 짐은 어이 업노 찬말노 우리 영이 목이 업서 죽어난양 업씨져 기절 흥고 잡싸져 통곡흥이 갈 길리 철이 갖드 불승한 장씨부인 업던 정신 슈십흥여 실성흥 그 시부를 익결면서 붓들면서 지성으로 짜라올 제 울면서 흥는 마리(박⑩, 39~40쪽).

이본 대다수는 [가]·[나]와 같은 서술 방식을 취하나, [다]·[라]는 진

술 형태를 달리했다. 조생원이 시체를 상여에 덩그렇게 실은 뒤 상여꾼을 재촉해 본가가 있는 강릉으로 향하는 장면이 담담하게 그려져 있다. 이는 조생원이 슬픔에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어 설치하겠다는 복수 의지를 강조하려는 필사자의 시각이 뚜렷하게 개입된 결과이다.

반면에 [마]는 [가]·[나]를 기본 문장으로 삼되 새로운 담론을 대폭 추가해 작품의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조생원이 양양의 사돈 집 신방에서 결혼 첫날밤에 목이 잘린 아들 시신을 겨우 수습한 뒤 상여에 싣고 백 여리 떨어진 본가로 돌아가면서 낙심해하는 장면을 구구절절한 묘사로 증첩시켜 놓았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 하염없이 통곡하며 죽은 아들의 이름을 호출하는 대목을 연속적으로 병치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조생원의 절절한 심정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박¹²는 [마]와 같이 부연된 서사 단락이 도입부와 전반부에 곳곳에 침입됨으로써 이본 중 서사 담론이 꽤 긴 작품이 되었다. 박⁴ 또한 분량이 긴 편에 속하는데 후반부와 종결부에 단락이 집중 추가되었다.

3) 지역 명소의 장소감 표출

필사자의 전사 환경도 이본에 반영된다. 지역적 특색이 무의도적으로 언어적 측면에 녹아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필사자가 장소성을 포착해 작품 속에 의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또 다른 이본을 생산한다.

『조생원전』에서 장소감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곳은 조생원과 조천행의 노정기이다. 조생원의 방랑 여정은 남북으로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동서로는 흑산도에서 울릉도에 이르기까지 지역 명소가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다. 예컨대 아들 조영이 생전에 공부하던 금강산 수월암의 비통함을 위시해서 한양성의 화려한 문물, 개성 만월대와 두문동의 역사적 비애, 선죽교의 정몽주 충절, 평양 기자룡의 유구한 내력, 황해도 청성묘 비석에 새겨진 백이숙제 절개, 백두산 천지의 거대한 광경, 부여 낙화암

의 망국 자취, 청주 화양동의 송시열 유지, 한라산의 기묘한 오백 장군석과 삼성혈, 안동의 순후한 풍속, 축석루의 삼장사 충절과 신유한 시, 화동 쌍계사와 칠불암의 선경, 쌍계사의 최치원 바위글씨 등이다.

이본들에 소개된 전국의 방대한 명승지는 고소설 중 유일한 사례로 보이며, 조선 후기에 유행한 산수유람 문화의 소설적 수용이라 하겠다. 문화적 기억의 장소는 필사자 취향에 따라 취사선택되었다. 대부분의 이본과 달리 박①·⑤, 율⑤·⑬은 경로가 많이 축소되었다. 특히 박⑤를 보면 조생원이 한양에서 순천 흥국사로 바로 내려가는 여정을 택했고, 율⑤는 금강산 수월암만 부각했으며, 율⑬은 텍스트 전반을 축약한 결과이다.

한편 조천행의 노정을 보면 이본들마다 위의 세부 장소가 대부분 생략되었고, 선택된 명소라 하더라도 장소사랑이 배제되어 있다. 그가 조부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한가롭게 여유를 즐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으로 사건 해결에 복선 역할을 하는 금강산 수월암에서의 일화가 길게 서술되었다.

필사자의 활동 공간도 이본 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생원이 남해 화방사에서 손자를 상봉한 뒤 승려들과 이별주를 마시고 이튿날 즉시 귀향길을 나서 한양에 도착해 수일을 더 머물기까지의 대목이다.

[가] 흐로 가고 잇틀 거러 일순을 지닌 후의 혼양의 득달하니 인왕산 중남산 옛 얼굴 썬여 잇자(박⑥, 476쪽).

[나] 이날노 절를 써나 흐로 가고 잇틀 가서 일순을 지닌 후에 혼양성 득달하니 인왕산 중남산은 옛 얼굴 완연하다(박태상본, 191쪽).

[다] 사중 계승의게 이별하고 노양 달리 열는 지니셔 하동읍의 어더 먹고 화기 연곡 열는 지니셔 구례읍의 숙소하고 산동원을 열는 지니여 남원읍에 걸식하고 밤지니 열느 지니셔 오수역의 숙소하고 노구바우 열는 지니여 전주 부중에 비러 먹고 습니을 열는 지니셔 노성에 비러 먹고 그렇저령 여러 날 만에 한양 성중 득달하여 황산 중남산은 옛 얼굴 완연하다(장②, 69면).

[리] 그날노 지을 뜻나 흐로 가고 잇틀 가이 질겨운 마음 청양 업다 부
 직집 츠즈들면 정곡 설화하고 옷도 주고 노즈 준다 밤을 당히 즘잘
 적이 죠손이 마조 안즈 즉약하기 질기신이 승천흐난 용이 쥬을 물
 고 히룽을 흐는 듯 도로이 보논 스람 뉘 안니 불송흐니 뉘 안니 칭
 촌흐며 그럭저럭 츠잠츠잠 느려갈 지 금강손 슬퍼보니 일만이천
 뉘뽀 봉이 녹을 보고 방기난듯(김②, 265~266쪽).

[마] 그날노 지을 써나 흐로 가고 이틀 가이 짓겨운 마암 청양 업다 부
 직집 츠즈들어 잘 제 조손이 마조 안자 자약하기 질기하니 상천흐
 난 양이 여이쥬을 히룽흐 듯 도로의 보난 사람 뉘 아니 불송타 아
 이흐며 뉘 안이 칭찬흐리 그럭저럭 만의 혼양성 치쳐달아 인왕산
 종남손은 옛 열골리 와연흐드(박⑫, 103쪽).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다]이다. 여타 이본들은 조생원이 화방사를 출발해 한양에 곧장 득달하는 데 비해, 이 작품은 남해와 하동읍을 거쳐 서울에 이르는 경로 중 여러 장소를 신설했다. “산동원”은 구례군에서 가장 북단에 있고, 북쪽의 남원과 동쪽의 하동과 경계를 이룬다. 현재 남원시 산동면 원촌리이다. “밤지늬”는 박③을 보면 “밤티지”로 표기되어 있는바 남원시 사매면 대울리이다. 그 위로 곧장 가면 임실군의 오수역이 나온다. “노구바우”는 임실과 전주의 경계 마을로 전략적 요충지여서 전주의 남관이라 불렀고, 현재는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이다. “숨니”는 박③에는 “삼일”로 표기되어 있고, 호남 최북단인 지금의 익산 시내를 지칭하는 고유어이며, “노성”은 익산 위의 논산시 노성면을 말한다. 작품에는 생략되었지만 조생원과 조천행은 노성 이후 공주, 천안, 안성, 수원을 거쳐 한양에 이르는 코스를 밟았다.

산동원, 밤티재, 노구바우, 숨니 등의 지명은 그곳 지리에 익숙한 필사자였음을 시사한다.³⁸⁾ 구체적인 장소 제시는 현장감과 사실성의 획득에 효과적이다. 이에 장소감과 장소사랑이 남달랐던 필사자가 모본을 전사

38) 이를 뒷받침하듯 장②의 표지 뒷면에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가 적혀 있다.

하면서 호남 역로의 거점 지역을 의도적으로 신설함으로써 서사 담론이 새로운 이본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4) 고전 지식의 이해도 편차

필사자의 고전 지식은 본문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배경 설명, 인물의 심리 상태, 인물간의 갈등, 특정한 장면을 압축적으로 제시할 때 고전의 예화를 인용하거나 시문을 발췌해 안배한다. 하나의 저본을 임사하더라도 필사자의 고전 해독의 수준에 비추어 바꾸거나 자신의 언어 취향에 따라 수정하게 된다.

- [가] 순임금 붓티신도 후처의게 디혹햏야 슈임금을 쥬이야즈고 준정도 록햏야 잇고 민자건의 이붓엇떼 엄동설흔 찬바람의 갈티곳 소음 노코 백의 이붓어미 옷시 별 즈부리 햏여 노코 익명을 입피시이(장③, 4~5면).
- [나] 순임금 부치신도 후취의겨 디혹햏야 순임금을 죽이라오 준정도롬 햏야 잇고 민자건의 이붓어미 엄동설흔 찬바람의 짚티곳 소임 노코 백지의 이붓어미 오시 별 즈부라 햏야노코 잉명을 입피시니(박⑥, 387쪽).
- [다] 순임금의 아바인은 지취으게 디혹햏여 순임금을 죽이라되 충성으로 간햏여잇고 민자건으 이붓어미 엄동설흔 찬발람의 쫄티곳시로 소음 옷와 자지고롬 다라 입고 어미 중의 별 자부 익명 입어시이(울⑧, 2면).
- [라] 순님금드 후저의기 디혹햏야 순님금을 쥐길나고 찬바람의 가씩곳 소 노코 구의 니부미 별 즈바라 햏고(울⑨, 3면).
- [마] 옛적이 순임금 아바님도 후처이 디혹햏야 엄동설한 찬바람이 갈곳으로 쇠염 노와 악명을 일엇스니 고금스를 싱각하와(하①, 3면).

이씨부인이 죽음을 앞두고 남편 조생원에게 3년 뒤에나 후처를 들이더라도 자식 조영을 생각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하는 대목이다. 악행을 저질러 역사에 악명을 남긴 순임금, 민자건, 윤백기의 계모 고사

를 가져왔다. 순임금의 부친 고수는 후처 자식인 상과 모의해 곡식창고의 지붕을 고치도록 순임금을 그 위로 올려 보낸 뒤 사다리를 치우고 불을 질렀으며, 또 순임금에게 우물을 파도록 한 뒤 미처 나오기 전에 우물을 막아 버린 일이 있다.³⁹⁾ 그리고 민자건의 계모는 자기 소생에게는 목화 솜옷을 입히고 민자건에게는 갈뽕 옷을 입혀 엄동설한에 별벌 떼를 만든 일화가 있다.⁴⁰⁾ 또 윤백기의 계모가 벌을 자기 치마 속에 몰래 넣은 뒤 곁에 있던 아들에게 잡아내도록 하고서는 옷을 벗기려 한다며 혈똥을 크게 외치자 윤길보가 후처의 말을 곧이듣고 아들을 내쫓았다는 이야기가 있다.⁴¹⁾ 모두 계모의 모함에서 비롯된 사건이고, 나중에 밝혀진 진실로 효성이 지극한 아들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내용이다.

[가]~[나]에 세 사람이 등장하나 사실 관계가 모두 다르지 않다. [가]는 ‘벌’은 맞지만 ‘백기’가 ‘빅의’로, ‘도름’이 ‘도름’으로 바뀌었다. [나]는 ‘준정’ 표기는 다르나 ‘도름’이 ‘도름’으로, ‘벌’이 ‘별’로, ‘백기’가 ‘백지’로 바뀌었다. 또 [다]~[라]의 경우 공통적으로 윤백기가 빠지고 두 사람만 등장한다. [다]는 민자건의 부친이 후처가 입은 옷 속의 벌을 잡는다 하여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라]는 순임금과 갈뽕 옷을 연계함으로써 뜻이 아주 모호해졌다. 그리고 [마]는 순임금 부친만 내세우고는 민자건 고사와 연결시켜 구성이 엉성하다. 참고로 박⑩과 박⑪에는 순임금만 등장하고, 박④는 전처의 정보가 애초부터 축약되었기에 고사 자체

39) 『열녀전』 권1 『모의전』〈有虞二妃〉와 『맹자』 『만장』에 나오는 ‘준정도름(浚井塗廩)’ 이야기인데, 일찍부터 우리 문헌에 다방면으로 수용되었다. 열녀전 고사의 소설적 수용에 대해서는 우쾌재의 『한국 가정소설 연구』(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참조.

40) 민자건(閔子騫)은 공자의 제자로 『논어』 『선진』에 효의 전형으로 나온다. 『몽구』에 ‘민손의단(閔損衣單)’,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에 ‘민손단의(閔損單衣)’ 제목으로 실려 있다.

41) 윤백기(尹伯奇)는 주나라 선왕 때의 효자로 명나라 장일규의 『요산당외기』 권1에 실려 있다. 조선후기의 『여훈언해』 제8과 『여사서언해』 제18장에 효자로 소개되어 있다. 그가 지은 『이상조(履霜操)』는 고려가요 『이상곡』과 관련이 있다.

가 없다. 온전한 작품은 박②, 율⑬ 정도이다.

한편, 서술자는 조생원이 손자와 함께 귀향할 때 16년 만에 찾은 고향 산천을 보고 감격해하는 마음을 간명하게 “笑問客從何處來”, “不改靑陰待我歸”라 표현했다. 전자는 당나라 하지장의 시구를, 후자는 유장경의 시구를 인용한 것이다. 둘의 한글 표기를 제대로 한 이본은 장①·③, 김④, 박⑥·⑨·⑩, 율⑪·⑮·⑱이다. 이와는 달리 김③, 박②·④·⑤·⑦·⑪, 율⑥·⑩·⑬·⑳, 박태상본에는 그중 하나만 나타난다. 그리고 장②, 박③, 하①, 율⑳에는 둘 다 삭제되었다.

위의 예들은 필사자의 고전 지식 습득 수준에 따라 서술 담론이 판이함을 보여준다.⁴²⁾ 본문을 수정하거나 부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더해지기도 했다. 한문 전고를 모르는 전사자는 자신의 언어감각으로 표기할 수밖에 없어 이본을 파생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독자가 해당 문장을 읽고도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다른 작품을 비교해 읽지 않는다면 과거나 지금이나 해득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여하튼 내용 변이는 이본 계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됨은 사실이다.

5) 서민 계층의 해학적 정서

『조생원전』은 사건 전개 과정에서는 비극적 정서가 지배하지만 갈등 해결 국면에 해학성을 가미함으로써 작품 감상의 묘미를 제고한다. 조생원이 상봉한 손자와 함께 귀향길에 오를 무렵 남해 화방사 승려 앞에서 춤을 추며 영산 시조를 창하는 장면에 대해, “이 빠지고 숨이 가빠 노래가 괴상하다 아래턱이 방아 찍고 두 볼때기 불무 분다(현대어 표기)”라

42) 한 예를 더 들면, 조생원이 매파로부터 재취로 맞이할 배씨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허부안화육친이요 병부안화육친이라”(박⑫, 7쪽), “허부안형석친이라 영부난팔육친이라”(김②, 155쪽), “헌부난화음치니요 영부난파육친니라”(김④, 156쪽), “헌부난 화륙지친이요 영부난 파륙지친이라”(율⑤, 6면), “헌부난 화륙친이요 영부난 파륙친이라”(율⑮, 6면)고 말한 대목이 있다. 이는 『명심보감』 「부행편」의 “賢婦和六親, 佞婦破六親”을 서술자가 인용한 것이다.

고 묘사한 단락은 희극적 표현의 묘미를 보여준다. 곧 해학성의 인식이 이본 파생의 한 요인이 된 셈이다.

이보다 앞서 조천행이 화방사를 찾아가서 조부의 존재를 실제 확인하는 대목이 있는데, 필사자는 비속어까지 동원해 해학적인 비장미를 심화하는 적극성을 보인다.

- [가] 그 중놈 더답혀되 조노인은 고스르고 좃노인도 업드 허거널 천행이 무류혀야 하는 말이 그 절 풍속 고약허드(박⑨, 694~695쪽).
- [나] 그 중놈 더답혀되 조노인언켄이 좃노인도 못바왔다 허그늘 천행이 무유혀야 혼즈 즈탄하는 마리 그 중은 괴이허다(울⑫, 80면).
- [다] 중이 답왈 조노인이라 큰어는 좃노인도 못보왔드 허그날 천행이 무니혀야 혼즈니 허는 말리 그 중은 힘실리 귀이허다(김②, 256쪽).
- [라] 그 중놈 대답 소리 드러보소 쇠눈 갖튼 두 눈깔을 부릅쓰고 조노인은 고사하고 좃노인도 못보앗다 천행이 패를 당하고 분함을 못이기여(박④, 249~250쪽).
- [마] 그 둥이 답왈 도노인은 고스르고 아무 노인켄이 슷키도 업다 허고 가거날 천행이 무류혀야 그 절 풍속 고약허다 허고(울①, 118면).

위 인용문을 보면 화방사 중이 조노인의 성씨를 비튼 “좃노인”으로 대용해 말함으로써 조천행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공통점이 있다. 독자들은 중에게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낭패를 당한 조천행에게는 가련한 동정심을 보낸다. 일상이 “좃노인”은 해학성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독자들의 서민 정서를 가감 없이 반영한 예라 하겠다. 심지어 [마]처럼 조노인을 얹잡아 “슷키”에 간접적으로 비유함으로써 조천행에게 심한 모멸감을 안겨준다.

이에 비해 여타의 작품을 보면 “좃노인”이 감정이 절제된 다른 용어로 바뀌어 있다. 조(趙)를 조(蚤)로 음차해서 칭한 “폐록싱원”(장②, 울⑧), 다른 성씨를 가져온 “박노인”(박⑥, 울⑩) · “이싱원”(박②) · “박싱원”(박③), 김씨에 빗댄 “섯부노인”(장①) · “식리방노인”(장③) · “쇠노인”(박⑧,

울⑥·⑨·⑬·⑰), 단순한 의미의 “생원”(박⑦, 박태상본)·“저 노인”(하①, 울⑩·⑳) 등이다. 대용 지칭어가 아예 없는 경우(김③, 박①·⑩, 하②, 울①)도 있다. 성씨를 비튼 강도의 약화와 반비례해서 담론 내부의 모순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벼룩생원’이라는 표현은 ‘쫓노인’과 비슷한 언어유희의 효과가 있지만 나머지 대용어의 경우 조천행이 크게 분노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순화한 언어유희는 조천행이 무료하게 반응하면서 풍속이 고약하다거나 중의 언행이 괴이하다고 독백한 부분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단어 변이는 골계적 서민 의식과 감정억압적인 서사 의식의 경계에 놓여 있었다. 소설 흥미가 반감되더라도 그 선택은 순전히 필사자에게 달렸고, 그것에 따라 서사 담론의 차이를 띠게 되었다.

이처럼 『조생원전』의 변이 양상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서사 담론의 다양성은 필사자가 이 책 저 책을 보고 등서하거나 원본을 암송한 뒤 뒷날 기록한 흔적이다. 문헌의 내적 변이가 일직선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기억의 재생일 경우 필사자의 심리 상태, 언어 감각, 고전 지식, 문장 구성의 능력에 따라 무수한 편차를 보이게 된다. 특히 조선후기 여성들이 한글 소설의 생성과 전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견해를 볼 때,⁴³⁾ 이들의 필사 의식이나 언어 지식은 자연스레 이본을 생성하는 변인이 되었을 것이다.

『조생원전』은 구술성이 강한 텍스트이다. 구술 문화의 창조성이 새로운 재료를 도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자료를 그때그때마다 개별적이고 독특한 상황이나 청중에게 어울리도록 효과적으로 맞추듯이,⁴⁴⁾ 이본의 변이 양상은 필사자가 서사 의식을 다양하게 변주한 결과이다.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는 일반적 시각보다 서사 담론의 차이를 통해 이본의 특성을 밝히는 데로 관점을 두어야 한다. 서사 담론의 비교

43) 이지하, 『조선후기 여성의 어문생활과 고전소설』, 『고소설연구』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321-325쪽.

44) 월터 J. 옹 지음, 이기우 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96쪽.

분석은 상호텍스트성⁴⁵⁾과 이본의 계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텍스트를 정밀하게 읽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다.

5. 맺음말

계모형 가정소설의 대표 작품의 하나인 필사본 『조생원전』에 대한 연구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선행 논의에서 이본 개별 작품의 성격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정작 미흡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검토대상으로 삼은 이본은 총 43종이다.

첫째, 19세기에 출현한 이본들은 1962년에도 생산되었고, 작품 내용은 잠정적이기는 하나 183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둘째, 입력한 9편을 기준으로 최다 분량은 박순호 54장본이고, 최소 분량은 율곡기념도서관의 32장본(갑인본)이다. 편폭의 차이가 무려 1만 3천여 자에 이른다. 또 텍스트의 물리적 성격과 서사 담론 비교를 통해 장서각 40장본, 김광순 62장본, 박순호의 40장본(임인본)·50장본·54장본·55장본, 박태상본, 하강진 29장본, 율곡기념도서관의 25장본·28장본·31장본·32장본(갑인본)·42장본·74장본이 선본임을 밝혔다.

셋째, 종결부가 아닌 중심 사건을 중심으로 담론 변이를 분석한 결과 서사 구조는 조생원의 꿈속에 망치가 등장해 가사를 잘 처리하라는 화소와 조천행이 조부를 찾아 나선 길에 한양에서 봉사를 만나 예언을 듣는 화소의 병치 유무로 대별되었다.

넷째, 두 화소의 유무에 따라 이본들을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I 유형으로는 장서각 3종, 김광순본 16장본, 율곡기념도서관 37장본, 박

45) 『조생원전』의 상호텍스트성은 이본 사이뿐만 아니라 판소리계 소설, 가사를 복합적으로 수용한 데서도 그 특징이 있다. 서인석, 앞의 논문 참조.

순호의 27장본·29장본·32장본·35장본·40장본 2종·50장본·53장본·55장본, 박태상본, 하강진 29장본, 율곡기념도서관의 25장본·28장본·31장본 2종·32장본(갑인본)·37장본·41장본·42장본·48장본·49장본·74장본이다. 이런 유형이 이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II유형으로 김광순의 33장본·56장본·62장본, 박순호의 25장본·54장본·67장본, 하강진 32장본, 율곡기념도서관의 40장본·48장본(Y359768)이다. 동일 유형 내의 이본들은 서사 담론의 특징에 따라 더 세분화할 수 있었다.

다섯째, 작품 분위기와 이야기 전개에 영향을 크게 주는 서사 변이는 필사자의 서사 의식이나 언어 지식에 기인하는데, 이본의 분량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그 특징을 사건 전개의 합리성 추구, 세부 장면의 사실성 강화, 지역 명소의 장소감 표출, 고전 지식의 이해도 편차, 서민 계층의 해학적 정서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여섯째, 이본의 변이 양상은 동일한 저본이나 다른 이본, 인접 갈래의 작품을 복합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조생원전』의 상호텍스트성은 이본의 계보를 설정하고, 텍스트를 정밀하게 읽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이본 연구는 난해 어구가 많은 작품을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다른 고소설과 비교할 때 그것에 합당한 작품을 선택하는 기초가 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시도한 계량적 분석법이 여타 고소설을 연구하는 데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김광순 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 전집』(약칭 전집) 21·24권, 경인문화사, 1994.

_____, 『필사본 한국고소설 전집』(약칭 전집) 63권, 박이정, 2004.

김동욱 소장, 『나손본 필사본 고소설 자료 총서』 57권, 보경문화사, 1993.

박순호 소장, 『한글 필사본 고소설 자료 총서』(약칭 총서) 44·57·58·90·91권, 오성사, 1986.

박태상 소장, 『국문학연습』, 한국방송대 출판부, 1990.

장서각 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아카이브(yoksa.aks.ac.kr).

울곡기념도서관 소장, 단국대 아카이브(dankook.ac.kr).

하강진 소장, 『조활립전』, 『조성원전이라』.

백운용 역주, 『조한립전·서행무릉기』, 박이정, 2015.

박재연, 『필사본 고어대사전』(전7권), 학고방, 2010.

조희용, 『고전소설 이본 목록』, 집문당, 1999.

_____, 『고전소설 줄거리 집성』2, 집문당, 2002.

_____, 『고전소설 연구 보정』, 박이정, 2006.

2. 논문 및 저서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권영철, 『조생원전(權本)에 대하여』, 『수우재 최정석박사회갑기념논총 ; 한국문학연구』, 효성여대 출판부, 1984, 1-13쪽.

김영권, 『“첫날밤 신랑 피살담”의 서사적 양상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44, 한국문학회, 2006, 189-218쪽.

- _____, 『‘첫날밤 신랑 모해 설화’의 소설화 연구-〈조생원전〉·〈김씨열행록〉·〈사명당전〉·〈구의산〉을 중심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2012.
- 김유란, 『조선후기 한글소설에 나타난 과부와 열행 너머의 문제』, 『한국어와 문화』 21,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2017, 5-29쪽.
- 김일렬, 『고전소설신론』, 새문사, 1993.
- 김희경, 『조선조 열녀소설 연구』, 경성대 대학원 박사, 2011.
- 류탁일, 『완판 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5.
- _____,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
- 박진아, 『‘누명 쓴 신부’ 설화의 소설화 양상 연구-〈설낭자전〉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69,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75-96쪽.
- _____, 『가사와 소설의 갈래 교섭에 대한 연구 : 소설사적 관심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 1995.
- 서혜은, 『〈조생원전〉의 이본 계열과 여성 독자층의 향유 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 한국여성문학회, 2011ㄱ, 133-162쪽.
- _____, 『이해조 〈구의산〉의 〈조생원전〉 개작 양상 연구』, 『어문학』 113, 한국어문학회, 2011ㄴ, 327-357쪽.
- 성형석,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형 설화의 소설화 양상에 관한 연구』, 경성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8.
- 신희경, 『매체 양식에 의한 고소설의 변이 양상 연구』-〈조생원전〉, 〈구의산〉, 〈김씨열행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9권 2호, 2016, 81-107쪽.
- 안미을, 『〈조생원전〉의 후대적 변모-〈김씨열행록〉, 〈구의산〉과의 비교-』, 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1992.
- 우쾌재, 『한국 가정소설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 이성권, 『한국 가정소설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남대 출판부, 1997.

- 이윤경, 「〈성부인전〉을 통해 본 〈조생원전〉의 변모 양상」, 『돈암어문학』 15, 돈암어문학회, 2002, 295-317쪽.
- _____, 「계모형 고소설 연구 - 계모설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 2004.
- 이지하, 「조선후기 여성의 어문생활과 고전소설」,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303-331쪽.
- 장시광, 「계모형 소설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작가의식」,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291-323쪽.
- 장우석, 「〈조생원전〉의 이본고」, 『승실어문』 22, 승실어문학회, 2006, 189-210쪽.
- 전용문, 「『조생원전』의 이본고」, 『학산 조종업박사 화갑기념논총』, 태학사, 1990, 393-414쪽.
- _____, 「〈조생원전〉과 〈김씨열행록〉의 상관성」, 『어문연구』 5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411-439쪽.
- 최운식, 「〈김씨열행록〉 연구」, 『국제어문』 11, 국제어문학연구회, 1990, 47-76쪽.
- _____, 『한국 고소설 연구』(개정판), 보고사, 2006.

<Abstract>

The Types of Different version on Manuscript version's Josaengwon-jeon and Characteristics of it's Discourse variation

Ha, Kang-Jin*

The Different versions(異本) of manuscript version(筆寫本)'s Josaengwon-jeon(조생원전) were produced between the 19th century and 1962, and the content of the work was set in the 1830s. As a result of actually entering the work, the difference between the largest and the smallest is about 13,000 characters. The Reliable version(善本) could be selected by comparing the physical nature of the text with the narrative discourse.

The discourse variation of the central event was divided into two types based on the analysis. And the discourse variation affecting the mood of the work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rrative is due to the narration consciousness or language knowledge of the scripiter, and it has become the main factor that causes the difference in volume of the book. The characteristics could be divided into pursuit of rationality in the development of events, strengthening the realism of detailed scenes, expressing a sense of place in local attractions, deviation in understanding of classical knowledge, and humorous emotions of the common people. Different version's pattern of transformation occurred in the process of accepting works of the

* Dongseo University.

same or different versions and adjacent branches. This intertextuality establishes the genealogy of different version and provides the basis for reading the text precisely.

This study intends to emphasize that it is the basis for selecting a suitable work when analyzing one work closely or comparing it with other novels.

Key Words : Josaengwon-jeon, Manuscript version, Scriptor, Different version, Reliable version, Type, Narrative discourse, Discourse variation.

■ 논문접수 : 2020년 3월 25일

■ 심사완료 : 2020년 4월 12일

■ 게재 확정 : 2020년 4월 17일